

싱어송라이터 영케이, “내려놓는 순간 청춘은 끝난다”

데이식스 멤버... 첫 솔로 정규 음반 ‘레터스 위드 노트’ 앨범 11곡 모두 작사·작곡가 참여, “새로운 시도와 도전”

밴드 데이식스(DAY6) 멤버 겸 싱어송라이터 영케이(Young K·강영현)는 청춘에 대해 증명한다.

작곡·작사도 하는 그는 곡에 대한 서술의 권한을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청자에게 넘긴다. 노래의 문으로 들어가 일상의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솔한 젊은 세대가 데이식스 노래와 그의 솔로곡들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다.

지난 4일 오후 6시 발매하는 첫 정규 ‘레터스 위드 노트(Letters with notes)’는 그런 영케이의 감각이 절정에 올랐음을 증명했다. 제목은 ‘음표로 쓴 편지’, ‘음을 붙인 편지’를 뜻한다. 영케이는 편지의 글쓴이로서 나섰지만 그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번 앨범 발매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첫 솔로 콘서트 ‘레터스 위드 노트’를 열고 수록 곡들을 전부 들려줬는데, 모두가 단숨에 감정 이입을 했다.

콘서트를 열기 전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영케이는 “곡이 발매가 안 된 상황이라 콘서트에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즐길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건 기우였고, 그의 노래는 역시 힘이 있었다. 다음은 영케이와 나눈 일문일답.

-솔로 데뷔 EP ‘이터널’(2021년 9월) 이후 약 2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매합니다.

“오랜만에 앨범을 선보이는 거라서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작업한 곡들을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

고 설립니다. 모든 녹음 작업은 전역(올해 4월) 이후 진행이 됐어요. 전부터 갖고 있던 아이디어가 있기도 했어요.”

-앨범에 실린 11곡 모두에 작사·작곡가로 참여했습니다.

“곡을 많이 써나가면서 분명히 더 수월해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곡수가 늘어날수록 (분위거나 스타일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해요. 해온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타이틀곡 ‘이것밖에 없다’엔 떠나가는 연인에 대한 감정이 가사에 잘 녹아 있어. 가사를 쓸 때 신경을 쓴 지점은 무엇입니까?

“홍지상 작곡가님과 작업을 위해 대화를 하다가 ‘전 무언가를 끝까지 좀 잡고 있는 편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려놓지 않는 점에 대해서요. ‘그러면 사람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번 앨범을 편지 형태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나요?

“앨범명 자체는 편지가 되지만 사실 음가(音價) 있는 글자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사라는 게 굉장히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문자 안에서 단어들을 선택해서 써야 하니까요. 그런 음가가 담긴 글자들이 모여서

곡 하나가 되고 하나의 편지가 되고 그 여러 항목들이 모인 게 지금 이 앨범입니다.”

-‘이것밖에 없다’ 뮤직비디오엔 그룹 ‘트와이스’ 멤버 다연 씨가 출연을 했어요.

“뮤직비디오 스토리 라인이 구축된 이후 제 상대 배역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회사(JYP엔터테인먼트) 추천으로 다연 씨가 출연하게 됐죠. 굉장히 영감이었습니다. 다연 씨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멋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솔로 음반은 두 번째잖아요. 이번 음반이 이전 음반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더 새로운 저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음반에 실린 곡들이 전부 ‘제 삶의 이야기 예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변화한 제 삶이 반영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악적 실력은 물론 보컬적 능력도 이전에 비해 향상이 됐으면 합니다.”

-홍지상 작곡가님과 작업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시너지가 있나요?

“데뷔 때부터 함께해 오신 분인데, 저희 데뷔 전부터 워낙 오래 많은 작업을 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렇다보니 저의 장점, 단점을 모두 아시는 분이기도 하죠. 잘 잘 파악하시고, 어떠한 시도들을 하면 좋을지 어떤 구상을 하면 좋을 지에 대해 조언을 해주세요. ‘본인의 노래를 듣지 말고 메트로놈(박자 측정기)과 반주를 더 들어라’ 같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또 인생 선배님으로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벌써 데뷔한 지 꽤 됐는데 지금까지 활동



에 대한 만족도를 스스로 평가해본다면요.

“연습 생활 그리고 데뷔 이후 활동한 제 모든 시간을 돌려보면 완벽하지 않았을지언정 그제 제일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95점을 주고 싶어요. 당연히 부족한 면들이 있었겠지만 그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다보니 나머지 5%는 계속 안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2010년대 중후반에 10대를 보낸 친구들의 상당수는 데이식스 팬이라고요. 무엇보다 자신들 청춘의 한 페이지처럼 여겨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늙지 않는 음악이기도 하면서 누가 들어도 좋을 만한 음악들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잘 전달이 됐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에 ‘렛 잇 비 서머’를 듣고도 ‘이제 진짜 청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계절로 표현했을 때, 화려르 타오르는 순간을 여름에 빗댄 곡인데요. 데이식스 ‘유스’ 시리즈 앨범 때도 그랬고 ‘청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정의, 그 시기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내려놓는 순간 그 청춘은 끝난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여름 동안 청춘을 계속 잘 간직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데뷔’ 라이즈, 선주문 103만장 돌파



는 멤버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하나의 팀이 돼가는 과정을 보여준 동시에, 빛나는 꿈을 펼쳐 나가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선공개곡 ‘메모리즈(Memories)’는 멤버들이 같은 꿈을 꾸며 연습한 추억을 간직하면서, 더 큰 세계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순수한 젊음을 표현한 노래다.

아울러 라이즈는 이번 앨범으로 자신들의 독자적 장르 ‘이모셔널 팝(Emotional Pop)’의 서막을 연다.

이들은 이날 데뷔를 맞아 오후 7시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라이즈 인트로덕션 필름(RIIZE Introduction Film)’을 공개한다. 오후 8시에는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라이징 데이: 라이즈 프리미어(RIIZING DAY: RIIZE Premiere)’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

SM엔터테인먼트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RIIZE)’가 ‘밀리언셀러’를 예고하며 데뷔한다. 라이즈는 4일 오후 6시 첫 싱글 ‘겟 어 기타(Get A Guitar)’를 발표한다. 앨범 선주문량은 총 103만2144장(9월 3일 기준)을 돌파하며 밀리언셀러에 성큼 다가갔다. 이번 앨범은 멤버들이 데뷔를 준비하며 함께 보낸 시간이 테마다. 타이틀곡 ‘겟 어 기타’

스트레이 키즈, 올해 美 앨범 최다 판매 아티스트 2위...1위는 스위프트



K팝 대세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의 정규 3집 ‘★★★★★(5-STAR)’(파이브스타)가 올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K팝 음반에 등록했다.

4일 빌보드와 JYP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의 ‘파이브스타’는 올해 미국에서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린 K팝 음반(현지

스키즈 정규 3집, 올해 美서 가장 많이 팔린 K팝 음반

시간 8월 28일까지 집계 기준)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전체 앨범 판매량 순위에서도 미국 팝 슈퍼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미드나잇스(Midnights)’와 ‘스피크 나우(Speak Now)(Taylor’s Version)’, 미국 힙합스타 트래비스 스콧(Travis Scott)의 ‘유토피아(UTOPIA)’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파이브스타’는 스트레이 키즈가 작년에 발매한 미니 앨범 ‘오디너리(ODDINARY)’와 ‘맥시던트(MAXIDENT)’에 이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찍었다.

특히 스트레이 키즈는 올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아티스트 랭킹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뒤를 이어 2위에 자리

해 K팝 대세 존재감을 빛냈다. 같은 기간 기준 전체 앨범 판매량 순위 톱10에 스트레이 키즈 ‘파이브스타’를 비롯 총 네 장이 포함됐다.

그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의 미니 5집 ‘더 네임 첩터 : 템페이션(The Name Chapter: TEMPTATION)’이 5위, 그룹 ‘트와이스’의 미니 12집 ‘레디 투 비(Ready To Be)’가 6위, 그룹 ‘세븐틴’(SVT)의 미니 10집 ‘FML’이 9위다.

‘K팝 대세’라는 사실은 미국 현지 시상식에서도 확인된다. 스트레이 키즈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오는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푸르덴셜 센터에서 열리는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이하 ‘MTV VMAs’) 퍼포머로 나선다.

쿠팡, 연예 매니지먼트업 진출...신동엽 영입

국내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개그맨 신동엽을 영입하고 연예 매니지먼트 업체에 뛰어 들었다.

4일 쿠팡은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가 신동엽과의 전속계약을 맺었다면서 4일 이렇게 밝혔다. 씨피엔터는 이날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다.

1991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신동엽은 명실상부 국내 예능계 간판이다. 쿠팡 OTT ‘쿠팡플레이’ 대표 프로그램인 ‘SNL 시리즈’ 등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씨피엔터테인먼트 최종목 대표는 “신동엽이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신동엽의 매니저로 17년간 함께 근무해 온 업계 베테랑이다. 신동엽은 오랜 기간 SM C&E에 몸담았는데 쿠팡의 투자를 받아 독자적인 활동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동엽은 지난 2004



년 연예기획사 DY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곳엔 유재석, 김용만, 송은이 등 인기 개그맨들이 대거 속해 있었다.

엔터업계는 씨피엔터가 이번 신동엽 영입을 시작으로 여러 연예인을 영입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최근 한류가 전 세계에서 유행하자 다양한 사업 군에서 대중문화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남극서 노래하는 최정훈...‘지구 위 블랙박스’ 기후위기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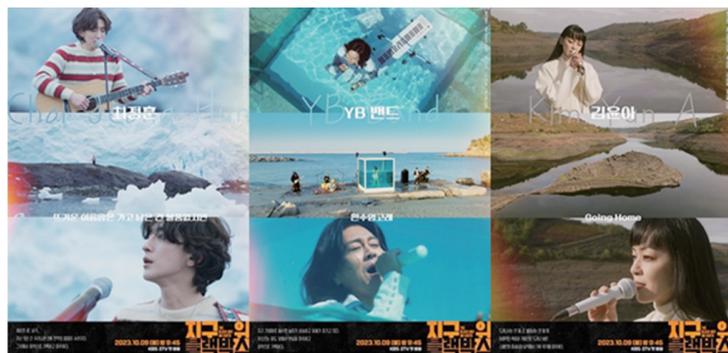
KBS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후위기를 알리고 음악으로 변화를 기록하는 ‘지구 위 블랙박스’를 다음 달 9일 첫 방송한다고 4일 밝혔다.

KBS 2TV ‘지구 위 블랙박스’는 기후변화로 파괴돼 가는 국내외의 6개 지역을 배경으로 아티스트들이 음악으로 지구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기 아카이브 콘서트다. KBS “오늘부터 무해하게”로 환경 예능의 필요성을 알린 구민정 PD의 신규 프로그램이다.

이날 공개된 아티스트 1차 라인업에는 밴드 ‘잔나비’ 최정훈, 밴드 ‘YB’, 밴드 ‘자우림’ 김윤아, 댄서 모니카X립제이, 그룹 ‘르세라핌’ 가수 정재형X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그룹 ‘세븐틴’ 호시 등이 올랐다.

최정훈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2배 면적의 얼음이 사라진 남극을 배경으로 노래하고, YB는 지구 가열화로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고 있는 동해를 뒤로 하고 수조 공연을 펼친다. 김윤아와 모니카X립제이는 이례적인 폭염

KBS 창립 50주년 대기화...내달 9일 첫 방송



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메마른 땅이 돼버린 스페인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르세라핌은 기후변화로 조류의 생기를 잃어가는 제주를 배경으로 공연을 한다. 정재형X대니 구는 인간을 위한 새우 양식

로 파괴된 지구의 허파 태국의 맹그로브 숲에서 위로의 선율을 연주한다. 호시는 세계 도시 탄소 배출 5위에 달하는 서울을 배경으로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펼친다.